

조선시대 조각보를 응용한 생활용품 디자인 연구

- 홈 인테리어 소품을 중심으로 -

조성란 · 박선경*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우리전통문화 중 규방공예의 한 장르인 조각보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구성과 형태를 분석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응용, 발전시켜 한국미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인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움이 요구되고 있는 디자인 흐름에 따라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가치 있는 미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손바느질을 함으로써 자투리천 하나하나가 이어져 면을 형성하고 그 면과 면 들은 많은 점, 선, 면의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형태로 연결되어 또 다른 다양한 화면으로 연출되는 구성 형식으로 풀어,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초한 현대 감각의 자유로움과 감성적 디자인으로 엮어내는데 주력 하였다.

주제어: 조선시대, 조각보, 생활용품, 홈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I. 서론

1. 연구목적

옷을 짓고 남은 자투리천으로 만든 것이 조각 보이다. 쓸모없어 버려지는 천을 모아 짓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주로 서민층에서 통용되었으며, 궁보에서는 아직까지 조각보가 발견된 예가 없다 한다. 일상생활에 쓰였던 조각보는 그 용도를 넘어 이제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다. 이렇듯 여러 조각의 천으로 만들어진 조각보는 자투리천 하나라도 아껴 사용했던 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으니 조각보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조각보는 국수와 실이 장수를 상징하듯 조각조각을 어어감으로써 조각같은 생명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거미줄이나 어망과 유사한 점에서 불행이나 마귀를 걸러 내어 액을 물리친다고 믿었으며, 공을 많이 들이는 과정을 일종의 치성(致誠: 신적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 뵙)행위로 받아들여 치성을 들인 대상이 초복(招福: 복을 부름)의 매체가 된다는 의미를 가졌다.¹⁾ 서로 다른 색상의 조각천이 잘 어울어져 하나의 조화로운 예술품으로 승화되기까지 단순히 깎고 꿰매는 일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염원을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문화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외에, 전통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우리고유문화의 특성을 품격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이다. 기술과 문화, 감성을 접목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유용한 물건으로 제작함으로써 정통성을 가진 디자인으로 재조명되어 현대적 디자인, 조형적 또는 예술적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들로 평가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전통문화 중 조각보의 개념 정리 및 고찰하고 둘째, 조각보가 현대디자인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 이를 통해 조각보를 응용한 작품성 있는 현대 홈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전통문화에 기초한 다양한 실험적 디자인 연구에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조각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리된 국내 문헌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박물관에 실존하는 유물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실물자료사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전문서적, 웹 사이트 및 조각보가 활용된 선행 연구 등의 자료들로 일반적 이론을 정리하였다.

조각보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2006년 이후 국내 패션디자인, 실내장식디자인, 건축디자인으로 국한된 사례(외국 디자이너가 설계하고 국내에 현존하는 건축물 포함)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도출된 조각보의 응용 작업은 홈 인테리어 소품을 중심으로 연구 및 제작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조각보와 같은 한 국민의 정서와 철학이 담긴 전통이 우리 실생활 공간에 활용되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고자 본 연구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통보자기와 자수의 명장 김현희²⁾ 선생에게 사사받은 전통제작기법을 본 연구 작품에 응용·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조각보를 수렴하고 환원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이야기 있는 디자인을 새롭게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조각보의 기원과 정의

보자기의 명칭은 표준말인 보자기 외에 복(袱), 보(褙), 보자(褙子), 복(福) 등으로 불리어 왔고 각 지방의 방언 명칭까지 더하면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각 지방의 방언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바뿌재, 밥부재(재), 보, 보대기, 보자, 보재기, 보재이, 보파리로, 경상남도에서는 밥수건, 보새기, 보새끼, 보재기, 보티이, 보파리로, 전라북도에서는 보, 보재기, 포대기, 포재기로, 전라남도에서는 보대기, 보재기, 보투이, 보파리로, 충청북도에서는 보재기, 보재기로, 충청남도에서는 보자, 보재개, 보재기로, 강원도에서는 보, 보자, 보재기로,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는 보대라고 한다. 보자기는 조선 중기에 간행된 문헌에는 ‘袱’으로 후기에는 주로 ‘褙’, ‘褙子’, ‘福’ 등으로 쓰였다. 특히 보자기 복(袱)자와 같은 음인 ‘福’이 보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 점이 특이하다. 또한 보자기(褙子器)가 보자의(褙子衣)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물건을 싸 두는 옷에 비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³⁾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하여 형질을 네 모지게 만든 것 중 작은 것을 특히 보자기라 하는데, 이 보자기는 서양과 동양에서 모두 보여진다. 서양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용도로, 동양에서는 물건을 싸는 용도로 쓰였으며, 이외에도 사용범위가 넓어 가리는 것, 덮는 것, 바치는 것, 장식적인 것 등의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⁴⁾

현재는 한자어 보(褙)로, 우리말로로는 보자기로 불리고 있으며, 조각보는 사전에 “여러 조각의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든 보자기”로 정의⁵⁾되는데, 별칭으로 ‘썩보’라고 하는 주로 옷을 짓고 남은 조각 천으로 만든 보자기이다. 조각보는 색색의 비단을 잘라 모양을 내 만든 것도 있지만, 서민층에서는

조각천을 사용해 만들다 보니 약간 비뚤어진 모양의 천도 그대로 사용해 불규칙적인 모양의 조각보가 많이 제작되었다. 조각보를 만드는 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침질에서 홈질, 감침질, 공그르기, 상침질까지 모든 바느질 기법이 들어가 여자아이들이 처음 바느질 배울 때 접하게 되었다. 조각보는 그 시대에 선호하는 색상과 만드는 사람의 개성, 감각에 따라서 다양한 색 배합이 가능했고, 비단은 물론 삼베, 마, 모시 등의 천 조각을 모두 이용해 제작하였다. 작게 만들면 다포(茶布: 다기를 덮는 보자기)나 상보로, 크게 만들면 햇蓆을 걸러서 받아들이는 가리개로 사용하였다.⁶⁾ 주로 궁중보다는 민간에서 쓰였던 것으로 조선시대 천이 귀하던 시절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모아 붙여 물건을 싸거나 밥상을 덮는데 쓰였다. 분명 물건을 덮고, 가리고, 싸는 물건이지만, 수(繡)를 놓거나 조각 천들을 멋들어지게 이어 붙임으로써 장식과 실용을 겸비한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각보가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문헌과 선행연구들에서도 정확한 조각보의 기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기원을 몇 가지로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위도 상으로 추운 나라에 속하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으며 천연자원이 적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이 낮고 좁아 매우 협소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물건이 가재도구로서 바람직했다. 즉, 보자기는 개폐에 따라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워 보관 혹은 운반 용구로 사용할 때는 용적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둘 수 있으므로 그런 가재도구로서 적격이었다. 이런 편의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자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시에는 염료나 옷감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값이 비싸서 의복 등을 만들고 남은 조각 천을 맘부(천 조각을 모아 두는 반주머니 형태의 보자기 방언)에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하나의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활용하여 실용적으로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⁸⁾ 셋째, 일종의 기복신앙(祈福信仰: 특정 대상에게 복을 비는 행동과 마음)적 요인의 작용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상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은 일종의 치성을 들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수를 놓거나 조각천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등 보자기를 공들여 만든 것은 복을 비는 마음과 정성의 한 표현일 수 있겠다.⁹⁾ 이렇게 꽃피운 문화는 생활공간 속에서 일반 공예와 달리 여인들이 주가 되어 손바느질 작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하고 생산하며 여인들의 숨씨와 섬세한 미의식은 수공예적 특성을 가진 조각보로 탄생했다.

2. 조각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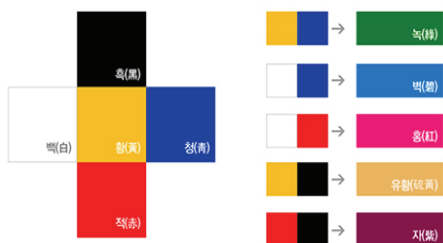
1) 색채

조선시대문화 전반에 걸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뿌리깊이 자리하였다. 색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려는 노력이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며, 생활 곳곳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면서 기본적인 오색이 방위 및 계절, 오행, 인체 및 사회 심리적 인간사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¹⁰⁾

조각보를 구성하고 있는 색채는 기본적으로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 다섯 가지 색을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¹¹⁾을 바탕으로, 음양 중에서 양(陽)에 해당하는 것이 청(靑), 적(赤), 황(黃)이며, 음(陰)에 해당하는 것이 백(白), 흑(黑)이다. 이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동방과 서방 사이에 벽색(碧色), 동방과 중앙 사이에 녹색(綠色), 남방과 서방 사이에 홍색(紅色), 남방과 북방 사이에 자색(紫色), 북방과 중앙 사이에 유황색(硫黃色)을 이루며, 이것을 간색이라 하고 열가지색을 기본으로 하였다. 조각보도 이러한 모든 색이 망라되어 있는데 대부분 2, 3차색이 많이 쓰여 은은한 파스텔 톤의 느낌과 원색이 강조되어 전체적으로 색상의 자연스러움과 긴장을 잃지 않는 명쾌함을 주고 있으며¹²⁾ 화사하고 절묘하며, 간결한 구성에서 여인의 번뜩이는 슬기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제작 의도나 표현에서 생활 미술의 경지를 넘어 순수미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특히, 모시 조각보의 경우 단색조(單色調: 그림이나 사진 따위가 흰색, 회색, 검은색 따위의 한 가지 색으로만 나타난 것)가 많은데 이것들을 조각천의 색상의 농담과 크기의 차이를 살려 하나의 조형작품으로서의 격조를 빚어내고 있다. 색상 배합이 청홍(靑洪)을 주조로 한 모시 조각보는 빨강, 파랑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대담성과 색면 분할의 세련미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는 추상화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파울 클레(Paul Klee)의 작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¹⁴⁾ 또한, 조각보는 우주의 원리를 따르고자 함과 동시에 옷을 짓고 남은 자투리 천을 아끼고자 한 것으로 각양각색의 천 조각을 잇대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완성된 조각보는 현대 디자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색채와 형태에 있어 뛰어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배색은 조형교육을 받지 않은 부녀자들의 숨씨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모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¹⁵⁾

그러므로 색채는 문화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



<그림 1> 오방색과 오방간색
(출처: <http://www.lifentalk.com>)

라 인간의 감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어떤 물체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색채학자 루이스 체스킨(Louis Cheskin)의 ‘형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보다 정신적·이성적이며, 색채에 대한 반응은 감성적이다’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90%의 감성과 10%의 이성에 의해 행동하게 되며, 색채는 마케팅 측면에서 디자인과 더불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한 배색에 의해서

도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색채는 상품 및 이미지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색채는 배색에 의하여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 이러한 색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패션상품이나 디자인에 응용하면 그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¹⁶⁾

따라서 옛 조각보 배색의 특성을 고려하되 색상구성에 일정한 규칙을 두지 않고 원색과 함께 2, 3차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려하고도 은은한 배색으로 진한 향수와 추억을 되살리는 감성의 자투리

<표 1> 직물의 종류 및 특성

종류	구분	직물별 조직	직물의 특성
옥 사			쌍고치[옥견(玉絹), 동공견(同功絹): 두 마리 이상의 누에가 하나의 고치를 만드는 것]로 부터 얻은 견사로 굵기도 일정치 않고 광택도 부족하나 불규칙한 효과를 내는데 적당한 실이다
공 단			단은 주자적을 기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단은 문양과 색상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 되어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공단은 두껍고 무늬가 없는 고급 비단의 일종이다
명 주			주포(紬布) 라고도 불리며, 뽕을 가꾸고 누에를 쳐서 길쌈하는 대표적 명주로는 두꺼운 겨울용 고급비단의 금(鉤)과 여름용 비단 라(羅)가 있다
무 명			또 다른 이름은 면포(綿布)로 14세기 중반에 중국 원나라에서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 보급되기 시작한 무명은 조선시대에 서민의 옷감으로 보편화 되었다
모 시			삼국시대부터 길쌈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시는 습도, 온도, 통풍에 매우 민감하고 잘 부서지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 적도 베틀에 얹아 손으로 짜지 않으면 만들 수 없고,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충남 한산 이 세모시 산지로 유명하다
삼 베			조선시대에는 삼베 생산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량 생산되었고, 삼베 산지는 각 지방에 분포되었는데, 함경도의 북포를 가장 좋은 상품으로 꼽았으나 현재는 경북 안동의 안동포와 전남 곡성의 돌살나이(무형문화재지정)가 질 높은 삼베로 유명하다.

미학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직물

조각보를 만드는데 쓰인 직물은 주로 명주(주포, 紬布), 무명(면포, 綿布), 모시(저포, 紵布), 삼베(마포, 麻布) 등이 있으며 이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특히 짜임새가 다양하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나는 비단류[사(紗), 라(羅), 단(緞), 명주(明紬)]가 쓰였고, 무명, 모시와 베로 만든 것도 많다. 면은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였으며, 비단 조각 보자기는 주로 호남지방에서, 모시 조각보는 강화지방에서, 자수 보자기는 관동지방에서 발달해 왔다.¹⁷⁾

현재 이름이 확인된 사(紗), 라(羅) 종류로는 은초사, 생고사(生庫紗: 생사로 짠 직물), 갑사(甲紗: 거북의 등껍질과 같은 외관을 가진 익직물), 자미사(紫薇紗: 작은 문양을 직물 전체에 드문드문 시문한 직물), 숙고사(熟庫紗: 숙사로 짠 직물), 진주사(眞珠紗: 육각형 무늬를 만들어 직물 전체에 배열하여 무늬가 구슬을 늘어놓은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 향라(尙羅: 주향라, 당향라) 등이 있는데, 자미사, 숙고사 등은 사 종류로는 두꺼운 편에 속한다. 향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늬를 넣어 짠 천이다. 단(緞) 종류는 대부분 양단(洋緞: 1876년 개항이 되면서 영국산 단직물이 수입되어 붙여진 이름), 모본단(模本緞: 수자문직으로 두께는 양단보다 약간 얇고 광택이 나며, 대개 단색이다), 공단이며 명주(明紬)와 함께 쓰이기도 했다. 단 종류와 명주로 만든 조각보는 겨울철에 사용되므로 보온을 위해 대개 겹보로 만들고, 안감으로는 같은 종류의 천이 조합되어 있다. 즉, 사·라 류의 얇은 견직물은 얇은 견직물끼리, 모시는 모시끼리, 단 종류와 명주 같은 두터운 비단은 동류끼리 혹은 서로 섞여 이어져 있다. 사 종류와 모시가 이어진 것도 간혹 있기는 하나 조형적인 배려에서 질감을 고려했음인지 거의 같은 종류의 천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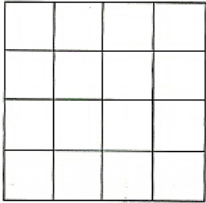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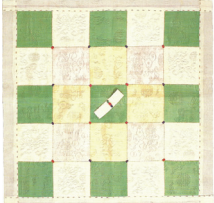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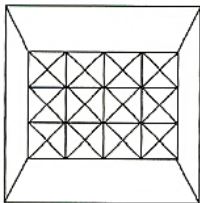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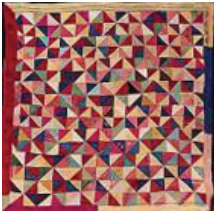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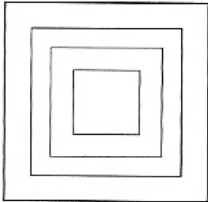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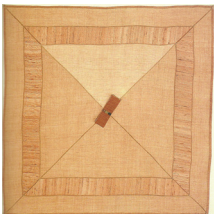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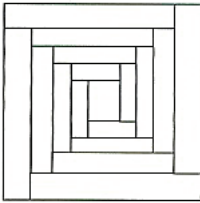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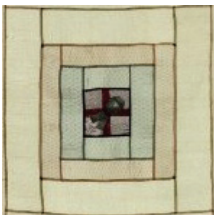
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조각보의 직물에는 사, 라 류가 많은데 모두 기계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계직 직물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였는데, 이때는 국내에서 기계직 직물을 생산했을 뿐 아니라 일본등지에서 수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각보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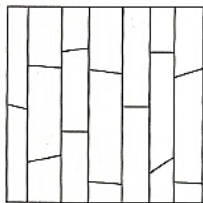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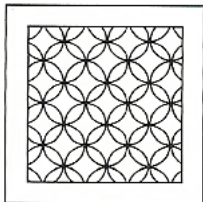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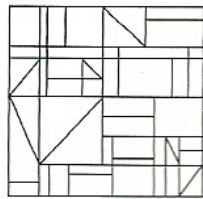
3) 구성형태

조각보 연구의 개척자 허동화 선생은 조각보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수집과 보존, 탐구에 헌신해 왔다. 그는 조각보를 보자기의 양식적 장르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조각보를 조선시대 여인의 창작희열과 미의식이 담겨져 있는 예술적 평가의 대상으로 여겼다. 또 허동화 선생은 조각보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식적 분류를 통하여 조각보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이론적 데이터를 체계화 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관심과 연구의 노력 결과 조각보에 대한 끊임없는 후학 연구는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파울 클레(Paul Klee), 요제프 알버스(Josef Albers)와 같은 서양의 추상회화의 작가들과 한국의 조형의식과 비교해서 유추해 내는 비교 연구의 시각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다.¹⁹⁾

조각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정사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의 조각이 두 개 또는 네 개가 모여 정사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경우와 보자기 중앙에 네모꼴을 중심으로 조각천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조각보가 있다. 또 여의주문보라 하여 일정한 크기의 원이 똑같이 겹치면서 꽃잎이나 여의주의 문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각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조각들로 자유로이 조각 천들을 이어 만든 형태이다.

<표 2> 조각보의 구성 형태

종류	구분	구성 형태	유물 사진
정방형	일정한 크기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조각천이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로 바둑판이나 계단형 등의 다양한 배열을 보인다		
		<그림 2> 정방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3> 창문문상보, 19세기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4)
사선형	이등변 삼각형이 정연하게 모여 사선으로 배열되어 정사각형을 이루거나 이등변 삼각형이 2개 혹은 4개가 모여 마름모형을 이루는 형태		
		<그림 4> 사선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5> 창문문상보, 19세기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4)
동심원형	중심점이 가운데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이 확장되어가는 형태		
		<그림 6> 동심원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7> 동심원형조각보, 19세기 (출처: 「보자기」, 2000, p.78)
바람개비형	가운데의 중심 형태를 기준으로 바람개비 날개가 돌아가듯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형태		
		<그림 8> 바람개비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9> 바람개비형조각보, 19세기 (출처: http://new.donga.com)

종류	구분	구성 형태	유물 사진
수직형	크고 작은 띠 모양의 장방형이 수직으로 칸을 이루며 반복되는 형태		
		〈그림 10〉 수직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11〉 화문모시수보, 19세기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7)
여의주문형	고전문보라고도 하며, 뜻대로 이룬다는 여의주문이 마치 꽃 무리처럼 화려하고 일정한 크기의 원형이 좌우상하로 일정하게 배열되거나 겹쳐 있는 형태		
		〈그림 12〉 여의주문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13〉 여의주문상보, 19세기 (출처: 「우리가 알아야 할 규방문화」, 1997, p.58)
자유형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장방형, 네모꼴, 세모꼴, 마름모꼴의 천 조각이 자유롭게 결합된 형태		
		〈그림 14〉 자유형 도식화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6)	〈그림 15〉 자유형조각보, 19세기 (출처: 「아름다운 우리전통보자기 만들기」, 2009, p.22)

여기에서 고유섭 선생이 말한 조선미술문화의 특징인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의 미를 찾을 수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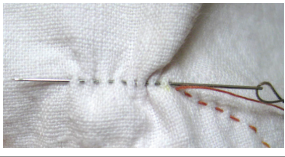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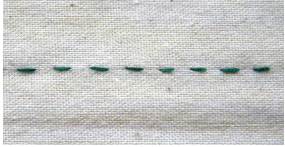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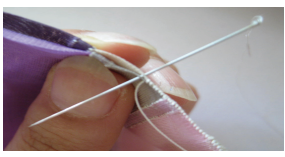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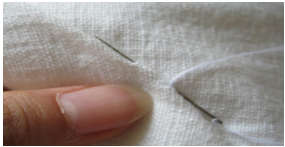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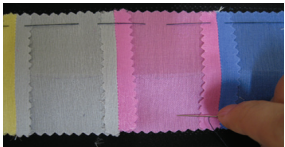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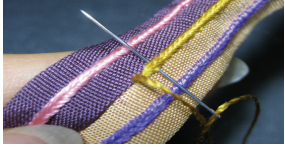
자투리 천을 이어 하나의 완전한 조각보 형태를 이루는 것은 몇 가지 패턴의 모양으로 정리된다. 정방형, 사선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수직형, 여의주문형, 자유형 등으로 조각천 모양과 색들을 질서있고 조화롭게 배열함으로써 변화를 주어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²¹⁾ 분류명은 모양에 따라 레이아웃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명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조선후기 조각보 유물에 나타난 구성 형태를 정리하여 <표 2>로 나타냈다.

4) 전통 손바느질 방법

우리 조상들의 전통바느질 방법은 한 땀 한 땀 바느질마다 정성과 인내 바느질 기법 그리고 여인들의 숨씨를 엿볼 수 있다. 전통바느질의 즐거움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는데, 보통 1~2년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표 3> 전통 손바느질 방법

종류	구분	손바느질 형태	손바느질 방법
홈 질			한 장, 또는 두 장의 천을 겹쳐 꿰매는 방법으로 모든 바느질의 기초가 되는 바느질이다. 천의 겹면과 뒷면 바느질 궤적이 동일한 모양을 나타낸다.
반박음질			천의 앞면 모양은 홈질과 비슷하나 천 뒷면에 나타나는 바느질 궤적은 앞면과 다른 형태의 모양이다. 홈질은 앞으로 전진하는 바느질 방법인 반면에 반박음질은 바늘이 나온 거리의 반만큼 뒤로 되돌아가 꿰매지는 바느질이다.
온박음질			박음질 방법 중의 하나로 되박음질이라고도 하며, 손바느질 중 가장 튼튼한 바느질 방법이다. 반박음질은 반만 되돌아 가는 반면 온박음질은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나온 거리 만큼 되돌아가 꿰매지는 바느질이다.
감 침 질			두 장의 천 시접을 겹쳐 접어서 꿰매는 방법으로 0.1cm 간격으로 한 올 또는 두 올을 떠 바느질한다.
공그르기			보통 완성단계에 사용되는 바느질 방법으로 단을 접거나 끈의 창구멍을 막아줄 때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바느질 한다.
시 침 질			두 장의 천을 서로 맞추어 놓고 완성선보다 조금 안쪽에 또는 안쪽과 바깥쪽에 바느질하여 천을 고정시키는 바느질이다.
상 침 질			상침의 간격은 0.1cm 간격으로 온박음질하며 이미 완성된 앞, 뒤 두 장의 천을 고정 시키는 바느질이다. 또한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바느질 방법의 하나로 땀수에 따라 한 땀, 두 땀, 세 땀 상침으로 구분된다.
귀밧치기			바늘에 색실을 꿰어 두 장의 천을 마주잡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서 0.5cm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바늘을 꽂아 바로 옆 왼쪽천 일직선 수평으로 바늘을 빼서 맨 처음 시작한 바늘구멍에 바늘을 빼는데, 이와 같이 반복을 하면 X자모양이 나온다.

손바느질 배울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자투리 천 잇기로 기본 바느질인 홈질에서 시작해 반박음질, 온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시침질, 세 땀 삼침, 컷받치기 등으로 마무리하여 하나의 보자기가 완성된다. 이는 연구자가 수년간 작품제작을 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사진의 일부로 <표 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손바느질 방법과 함께 알아야 할 부분은 보자기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방대하여 우선 홍보와 겹보만 살짝 언급하고자 한다. 홍보는 안감을 대지 않으므로 천 조각을 이어 붙일 때 솔기 부분의 실이 풀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홈질을 해서 솔기를 찼다. 이때 두 번째 홈질한 자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천과 같은 색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을 바탕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색실을 써서 바느질 땀을 선명히 보여주는 점이다. 이렇게 보자기 전면에 바느질 궤적을 드러내어 바느질이 천 조각을 이어 붙이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보자기를 장식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겹보를 꾸밀 때는 접혀 들어간 시접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들어간 시접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시접을 양쪽으로 꺾은 다음 천의 겉면에서 감침질을 하였다. 이때도 눈에 띄는 색실을 사용해 감친 흔적을 보여 주는데, 홍보와는 달리 바느질 자국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나타내는 것이 겹보 바느질의 묘미이다.²²⁾

3. 조각보를 응용한 현대 디자인 작품 사례

우리의 전통문화인 조각보를 현대화, 세계화하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작업들이 시도되고, 실생활에 속에 입고 활용할 수 있는 의상과 액세서리, 소품들로 재창조된 작품들을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패션디자인 의상에 응용된 작품 중 <그림 17>과 <그림 20>의 이상봉

디자이너는 2009년 S/S 컬렉션에서 정방형 조각보를 응용한 컬러풀한 색채로, 전체적 흐름은 크고 작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면이 서로 어긋나고 중첩된 수직과 수평의 교차 구성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장식을 필요치 않는다. 여기에 강렬한 색상 대비를 통해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의 조각보 드레스와 슈즈로 표현한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감각의 대표 디자이너로서, 전통문화 세계화에 앞장서는 패션 예술의 선구자적 역할 모델로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실내장식디자인 분야 최애자 작가는 자신의 집을 작업실 겸 갤러리로 활용하면서 인테리어에서 소품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조각보 응용과는 차별된 품격으로 가치 있는 일상생활속의 미학을 남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끄집어내어 과거와 현대양식이 평화롭게 어울어져 녹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방형 구도형태가 나타난다. <그림 32>의 금강오길비그룹 접견실은 크고 작은 띠 모양의 장방형이 수직으로 칸을 이루며, 반복되는 수직형 조각보 형태이다. 보통 접견실은 저명도 저채도 컬러의 색상을 배치하고 조명을 비추어 무겁게 있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해 유채색의 고명도 중채도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는 파격적 장식효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곡선의 틀 안에 직선을 결부시킴으로써 부드럽고 우아한 공간을 부각시켰다. <그림 36>은 2010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옛 여인들이 자투리 천을 맘부에 모아 하나의 실용적인 조각보를 완성하듯 패원목자재를 모아 두었다가 마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끼워 맞추듯 부드러운 브라운 톤의 농담이 군데군데 조화롭게 전개하여 자연에서 얻은 순수조형 형태의 벤치는 군더더기 없는 오브제로 재탄생 하였다. <그림 38>은 이재효 작가의 작품으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여러형태의 수십개 조각들을 자유롭게 배치한 자유형 조각보 형태이다. 나무 조각, 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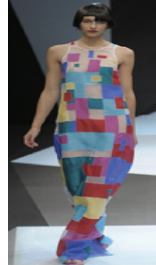
<표 4> 조각보를 응용한 현대 디자인 작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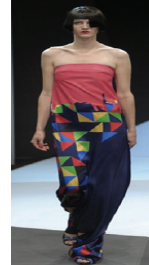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설립기념 패션쇼 2006
(출처: 월간 한복의美,
2006. 10, p.83)



<그림 17> 권진순
2006 한브랜드 박람회
(출처: 월간 한복의美,
2006. 10, p.78)



<그림 18> 이상봉
2009 S/S 컬렉션
(출처:
www.liesangbong.com)



<그림 19> 이상봉
2009 S/S 컬렉션
(출처:
www.liesangbong.com)



<그림 20> 이영희
2011 S/S 서울패션위크
(출처:
www.leeyounghee.co.kr)



<그림 21> 이상봉
2009 S/S 컬렉션 (출처:
www.liesangbong.com)



<그림 22> 조각보문양
실크가방 (출처:
<http://www.google.co.kr/image/search>)



<그림 23> KHERITAGE
정사각 조각보 스카프,
2013년 (출처:
<http://www.khmall.or.kr>)



<그림 24> 조각보 문양
넥타이 핀 & 커프스
(출처:
<http://www.cookieyma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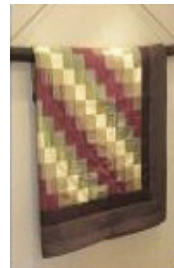
<그림 25> 김제희
조각보 넥타이, 2009년
(출처:
www.economy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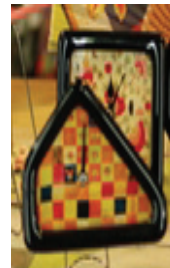
<그림 26> 한 클래식
2012 해운대 두산
위브더제니스
팬트하우스코디 (출처:
www.hclassic.com)



<그림 27> 한 클래식
2008 코리아 디자인
전시회, 영국 (출처:
www.hclassic.com)



<그림 28> 이효재
혼수 수직 실크 조각보
이불, 2010년 (출처:
image.serch.naver.com)



<그림 29> 김제희
조각보 시계, 2009년
(출처:
www.economym.com)



<그림 30> 까치공방
조각보 모시갓 전등,
2012년 (출처:
www.kachicraf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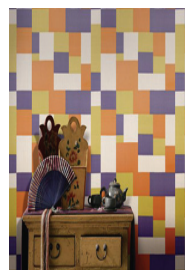
<그림 31> 최애자
작업실 & 갤러리 (출처:
<http://www.maisonkorea.com>)



<그림 32>
금강오길비그림의
집건설, 2008년 (출처:
<http://www.google.co.kr/image.search>)



<그림 33> 에코한옥센터
조각보 커튼(출처:
<http://www.google.co.kr/image.search>)



<그림 34> 지아니 벽지
지아니 & 효재 컬렉션,
2013년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



<그림 35> 빛그림 공방
조각보 한지등 (출처:
<http://www.grimf.com/gri/mf/interior/list.php>)



<그림 36> Lab의 'Stitch' 시리즈,
2010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출처: www.happydesign.co.kr)



<그림 37> 당미나
조각보 문양속에 담긴 예단함,
제 11회 대한민국 한지대전
대상 수상작
(출처: www.designd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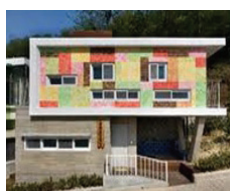
<그림 38> 이재효
나무조각의자, 2007년 (출처:
<http://www.leeart.name/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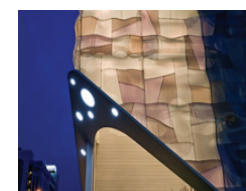
<그림 39> 박연규
조각보 테이블 (출처:
<http://www.ecocluster.co.kr>)



<그림 40> 이타미 준
제주도 방주교회, 2009년
2010년 제33회 한국건축가협회
대상 수상작 (출처:
<http://www.bangjuchurch.org>)



<그림 41> 조서영
푸른솔 경로당, 2012년 (출처:
<http://www.google.co.kr/image.search>)



<그림 42> (주)삼성물산
코리아 모던스타일, 2010년
디자인상(Red Dot, iF,
일본G마크) 수상작 (출처:
<http://www.mondrian.co.kr>)



<그림 43> 전남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2009년 (출처:
<http://www.taxtimes.co.kr>)

강철, 가지, 잎, 등의 원시적 재료의 상태를 구부리고, 쌓고, 파내고, 말고, 묶어 뛰어난 조합과 숙련된 기교를 결부시킴으로써 불품없었던 재료들이 그만의 독특한 기하학적 모양의 입체 장식 조각들로 만들어 재탄생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림 40>은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로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준이 설계한 건축 디자인이다. 2009년도에 완공되어, 2010년 제33회

한국건축가협회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노아의 방주를 본 따 만든 것이라 한다. 이등변 삼각형이 2개 또는 4개가 모여 마름모형을 이루는 형태로 하늘과 맞닿은 지붕은 무채색의 거대한 사선형 조각보를 던져 놓은 듯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위엄 있는 아름다움이 자태를 내뽐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디자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III.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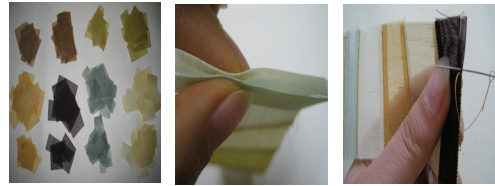
1. 작품제작 의도

수세기에 걸쳐 실용성과 미를 연결한 조각보는 주로 내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용품과 관련하여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운 비단을 사용하여 수를 놓거나 조각을 잇는 것은 아마도의·식·주생활과 함께 인간생활 중심에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문화가 현대 문물에 밀려 그 활용이 미비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퇴색되고 잊혀질때 즈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국가정책 아래 전통문화의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통문화의 한 장르인 조각보는 현대 일상생활에서 디자인, 건축, 조형예술 패션 등분야를 막론하고 활용 범위는 매우 높다. 이에 아름다운 산물이며 조형물인 조각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따른 예술적 가치를 과거의 양식과 현대 양식과의 조화로운 요소들로 결합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용품 중 홈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작업에 무게를 두었다.

2.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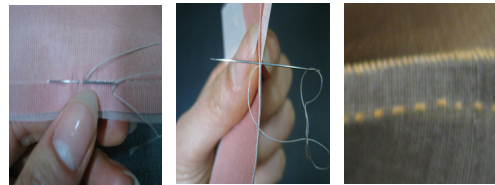
1) 조각 잇기: 감침질

① 조각천을 디자인에 맞게 재단하고 크기와 배색별로 분류한다. ② 조각천 두 장을 각 각 헤라로 시접 0.5cm로부터 위치한 곳에 눌러 선을 긋는다. ③ 헤라로 눌린 선을 접고, 두 장의 접힌 선끼리 맞대놓고 비단실로 고운(0.1cm) 감침질한다. ④ 이렇게 재단한 조각천을 디자인과 배색을 맞추어 모두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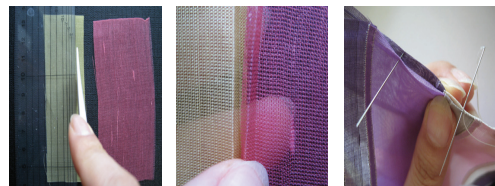
2) 조각잇기: 흙질 + 감침질(쌈술)

① 두 장의 조각천을 겹쳐놓고 헤라로 시접 0.7cm로부터 위치한 곳에 선을 눌러 만들고 그 선을 고운흙질 한다. ② 두 장의 조각천 중 한 장의 조각천의 시접을 0.3cm로 잘라내고 나머지 0.7cm 남긴 시접을 0.3cm시접을 감싸 두 번 접는다. ③ 맞닿는 조각천에 접힌 선과 동일하게 헤라로 눌러 선을 만든다. ④ 헤라로 눌린 선과 접힌 선끼리 겹쳐 고운(0.1cm) 감침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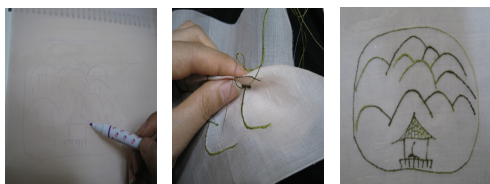
3) 조각 잇기: 감침질 + 감침질(쌈술)

① 두 장의 조각천을 헤라로 시접 0.3cm, 0.7cm로부터 위치한 곳에 선을 눌러 만든다. ② 두 장의 조각천 시접 0.3cm를 서로 맞물려 포개 감싼다. ③ 두 장이 맞닿는 조각천에 0.7cm 접힌 선과 동일하게 헤라로 눌러 선을 긋는다. ④ 두 장의 조각천 접힌 선끼리 겹쳐 앞, 뒤 모두 고운(0.1cm) 감침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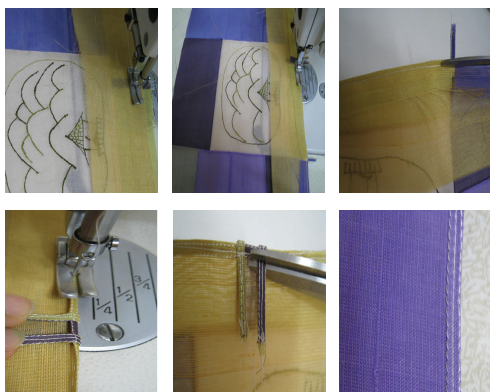
4) 감침질로 그림그리기

① 천에 원하는 그림을 기화성 펜으로 그린다. (본 그림은 캘린더에 실린 임효 작품의 『어화동 등』 그림을 천에 그대로 옮겼다.) ② 그려진 선을 따라 감침질한다. ③ 감침질은 실의 굵기와 실의 색상을 조절하며 바느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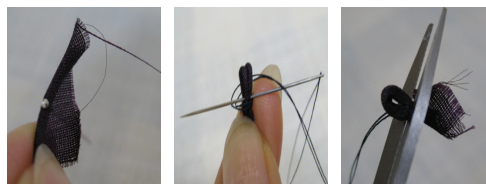
5) 깨끼박음질(본봉)

① 두 장의 천을 겹쳐놓고 완성선 밖으로 0.4cm 위치한 곳에 1차로 직선 봉제한다. ② 봉제된 선을 따라 시접을 접고 1차 봉제선에서 0.2cm 떨어진 안쪽(시접)으로 2차 직선 봉제한다. ③ 2차로 봉제된 선을 따라 시접을 바깥 쪽으로 잘라낸다. 이때 봉제선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잘라낸선 즉, 2차 봉제선을 따라 한 번 더 접는다. ⑤ 접힌 면에는 1차 봉제선과 2차 봉제선이 나타나는데 두 봉제선 사이를 따라 3차 직선 봉제한다. ⑥ 두 장의 천을 펴 다르면 3차 직선 봉제선(완성선)을 기준으로 시접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깨끼 박음질이 완성된다. 이는 손바느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깨끼바느질이 완성된다.



6) 박쥐매듭

① 비단 천을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양쪽 모서리에서 말기 시작하여 중앙까지 말아 11자가 되게 단단하게 만든다. ② 단단하게 말린 11자를 반으로 접고 0.5cm 아래를 꿰매어 기둥을 만든다. ③ 기둥을 자른 후 풀칠하고 둥근 부분을 양쪽으로 잡아 편다.



7) 여의주문

① 한 장은 90×90cm, 다른 한 장은 45×45cm 로 잘르고 사방은 꺾어 박아 놓는다. ② 크게 재단된 천을 네 모서리가 중심에 모이도록 접고 뒤집는다. ③ 뒤집힌 천 위에 작은천을 마름모 형태로 올려 놓고 큰 천으로 감싼다. ④ 중심에 모인 모서리는 손바느질로 고정시키고, 원하는 크기의 타원형 모양으로 양쪽으로 벌려 시침질하거나 시침핀으로 고정시킨다. ⑤ 고정시킨 모양을 따라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한다.(때에 따라 색실로 타원형 모양을 흠질하여 바느질 궤적이 들어나 또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 ⑥ 이렇게 네 곳을 동일 방법으로 작업하면 네 잎의 꽃 모양이 완성된다. 포인트로 박쥐매듭을 단다.(전통적인 여의주문은 동일 방법으로 수십개를 이어 붙여 제작한다.)



8) 잇은 조각천 나무액자에 넣기

① 외곽 사이즈 21×21×1.5cm 나무틀 2개, 내곽 사이즈 21×21×5cm 나무틀 2개 준비한다. ② 색 보 존 및 무늬결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나무목은 인 두질 한 후 왁스를 칠해 다듬어 놓는다. ③ 이는 조각천을 액자에 올려놓고 센터를 맞추어 스템플 러로 고정시킨다. 이때 천을 약간 잡아 당기며 작 업해야 완성 후에 천이 팽팽함을 유지한다. ④ 망 치를 이용하여 튀어나온 스템플러를 나무액자에 평평하게 박는다.(원하는 위치가 아니거나 잘못 스 템플러가 고정된 곳은 송곳을 이용하여 스템플러 를 빼고 다시 수정 및 고정시킨다) ⑤ 조각 천이 고정되었으면 주변 군데군데 강력 접착제를 소량 바른다. ⑥ 위에 올라오는 외곽액자를 아래(내곽) 액자에 맞추고 접착이 잘되도록 힘껏 눌러 고정시 켜 완성한다.



3. 작품 및 작품설명

작품 I

춤추는 조각문발

모 티 브 : 자유형 조각보

제작기법 : 감침질, 씌술

소 재 : 노방

크 기 : 99×120cm

작품설명 : 조각문발의 경우 모두 손바느질로 완성한 것 으로 일정한 패턴과 디자인을 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천 조각을 기교없이 잘 라 색상과 크기별로 분류한 후 자유롭게 결 합한 형태다. 색채는 오정색의 황색을 주조색 으로 채도와 명도의 변화를 주고 강조색으로 중명 도의 회색과 남색상을 강조색으로 포 인트를 줌으로써 지루하고 평범해 보일수 있 는 조합을 변화와 긴장미 있는 결합으로 이 끌어 냈다. 완성된 문발을 베란다 창문에 거 니 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추는 형상이 살아 있는 생동감을 준다



2013. 5. 23. 촬영

작품 II

가을들녘 러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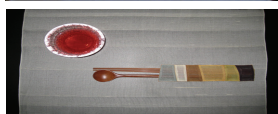
모 티 브 : 자유형 조각보

제작기법 : 감침질, 가름술

소 재 : 옥사

크 기 : 31×150cm, 37×31cm

작품설명 : 마름질된 각각의 조각들이 자기위치를 찾아 넓은 화면에 배치되어 또 다른 작은 화면의 그림을 그린다. 은은히 흐르는 백색, 유황색, 겨자색, 녹두색, 갈색 구성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군집된 형태는 전형적인 조각보의 형상이다. 음양오행중 양에 해당하는 흑색과 청색을 양끝에 배색하여 색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안정감 있는 마무리로 어려운 퍼즐조각을 맞춘 느낌을 표현하였다. 감침질로 조각 천을 잇고 옥사가 주는 가벼움을 중화시키고자 고명도 저체도의 매우 얇은 회색 옥사를 중첩시켜 겹보로 제작하였다



2013. 5. 23. 촬영

작품 III

향기품은 다포

모 티 브 : 정방형 조각보

제작기법 : 흙질, 감침질, 씹술

소 재 : 자연염색 옥사

크 기 : 45×35cm

작품설명 : 다포(茶布)는 베로 만들어 차를 마시지 않을 때 다기를 덮는 천을 뜻하며, 보통 베와 모시로 많이 제작된다. 일정한 크기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조각천이 모여서 이루어진 정방형 구성형태를 이룬 대칭적 구도이다. 옥사 생지에 양파, 감, 밤 등의 농담을 달리하여 자연 염색한 6조각의 천을 흙질하여 잇고, 감침질로 씹술 처리하여 안감을 대지 않은 흙접으로 만들었다. 먼저 흙질로 천을 잇게 되면 흙질의 껍적이 천위에 그대로 조금은 삐뚤빼뚤하고 어긋나도 그에 어울리는 손바느질의 멋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자연을 집안으로 들여온 소박한 아름다움과 손바느질의 우아함은 편안한 휴식 공간에서 여유를 찾는 진정한다



2013. 5. 23. 촬영

작품 IV

꽃잎 쿠션

모 티 브 : 여의주문형 조각보

제작기법 : 감침질, 공그르기, 박쥐매듭

소 재 : 무명, 삼베

크 기 : 45×45cm

작품설명 : 단위조각들을 좌우상하로 일정하게 배열하고 하나하나 천을 대어 만든 여의주문형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느 조각보도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여의주문보는 특히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다. 그 한 귀퉁이를 떼어내어 확대 강조함으로써 절제미와 장식미를 부각시켰다. 백색의 무명을 정사각으로 접고 꿰매고, 고명도 고채도의 녹색 삼베 천을 대어 꽃잎 모양이 나오도록 작업하였다. 꽃잎의 색은 다른 색과 천으로 교체하면 그 때 그 때의 분위기를 달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유도했다. 또한 이 꽃잎은 사진형태로 장식되어 리듬감까지 전개된다



2013. 5. 23. 촬영

작품 V

감성 액자

모 티 브 : 여의주문형 조각보

제작기법 : 감침질, 박쥐매듭, 씌움

소 재 : 옥사, 명주

크 기 : 21×21cm

작품설명 : 백색, 적색, 황색, 회색, 보라색의 조밀한 면으로 전체를 구성한 액자(上)는 조각마다 겹치는 이음선이 새로운 장식선으로 표현된다. 중앙 백색의 바탕천 위에 명주로 만든 박쥐매듭을 달아 포인트를 주었다. 전등액자(下)는 고명도 저채도의 매우 얇은 적색 천에, 실의 농담과 감침질의 굵기로 그린 풍경으로, 불빛에 투영된 음영으로 인해 본연의 색과 작품의 느낌이 다르게 전달된다. 두 액자 모두 벽걸이용 액자로 또는 불빛에 비추면 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액자로 제작하였다



2013. 5. 23. 촬영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전통구방문화 중 조각보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 그리고 문화적 감각 디자인으로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작품 제작 기법에서 만큼은 그동안 손바느질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 손바느질과 기계봉제를 7:3의 비율로 만들었다. 이는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수개월의 작업 기간을 거쳐 정성과 열정을 쏟은 홈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기하학적 패턴의 조각보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하여 여기서 보여지는 기하학적인 구성양식을 응용하는 작업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남는 천의 자투리를 이어붙인 것이라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마치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 조선시대 여인들은 마음 가는대로 천의 위치를 이리저리 붙였는데 이를 본인의 작품에도 도입하였다. 마치 계획된 의도 없이 가색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재미가 나타났으며, 그 안의 구성양식에서 현대적인 조형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색채적인 면에서는 색상의 배열 하나 하나에 정성이 들어간다. 특히 옥사 조각 러너에서는 그 안에서 은은히 흐르는 다양한 색채와 강한 대비를 주는 강조색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평범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조합을 긴장미 있는 변화와 결합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신인 조화성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자연에서 얻어지는 양파와 감, 밤물을 들인 옥사 다포 작품은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함은 인위적인 변형을 안해도 이미 많은 변화가 느낄 수 있는 장식 소품으로 아무 곳에 던져 놓아

도 탁월한 어울림을 보인다. 즉, 제작 목적에 맞는 쓰임새와 다른 쓰임새에 맞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변능력은 아마도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의 힘이 아닐까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자는 작품 제작에 앞서 전통보자기와 자수의 명장 김현희 선생으로부터 전통제작 기법을 사사 받았다. 이는 전통성을 가진 전통기법을 올바르게 익혀 바람직한 방법과 방향으로 과거의 전통을 따르면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 가미된 디자인을 하기 위함이며, 전통기법의 섬세함과 현대 기술의 유연성을 더하여, 기존 상품들과 차별화된 인간 감성에 맞춘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우리문화유산의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창출하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고, 이를 통한 세계화로서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수많은 과정을 손으로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더디고 힘들었지만, 손끝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이미 예술적 가치와 차별화된 발전 가능성 있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량생산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인건비 상승은 제품가격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대체하고자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역수입된 제품은 가격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공예품은 조잡하기 그지없는 것도 한계이다. 또한 이런 제품을 접한 일부 현대인들의 해외명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로 인해 전통문화디자인 분야는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수많은 가치 있는 작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면 받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은 21세기 정보화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 가운데 전통문화디자인산업은 우리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콘텐츠로 현대 디자인으로

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한다면 무한한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통문화디자인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수립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허동화 (1988). 옛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p.274.
- 2) 김현희: 조선시대 수방나인에게 사사 받은 윤정식 선생에게 자수를 배웠다. 한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9회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1997년 대한민국 자수명장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하 한국전통건축공예학교에서 자수, 보자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3) 허동화 (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규방문화, 서울: 현암사, pp.247-248.
- 4) 허동화 (1988). 앞의 책, p.266.
- 5) 위키백과사전(검색어: 조각보), 자료검색일 2012. 12. 20. <http://www.wikipedia.org>
- 6) 박물관포털e뮤지엄 유물찾기(검색어: 조각보), 자료검색일 2013. 4. 25.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94759
- 7) 김여경, 홍나영 (2009). 조각보 의미 분석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 방안, 복식, 59(3), p.146.
- 8) 이미석 (2005). 우리규방문화와 침선소품, 서울: 한국학술정보, p.255.
- 9) 김현희 (2000). 보자기,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5.
- 10) 백영란 (2008). 한국전통 오방색을 이용한 조형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 11) 음양이란 사물(事物)의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記號)라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호에다 모든 사물을 포괄·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인 본질(本質)을 양면으로 관찰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원론적(二元論的) 기호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오행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원기(元氣), 곧 목·화·토·금·수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오행의 상생(相生)·상극(相剋)의 관계를 가지고 사물간의 상호관계 및 그 생성(生成)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방법론적 수단으로 응용한 것이다.
① 오행상생(五行相生):오행의 운행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낳는 관계이며, 곧 목생화(木生火)·화생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생수(金生水)·수생목(水生木)이 된다.
② 오행상극(五行相剋):상극에는 억제(抑制)·저지(沮止)의 뜻이 내포되었고, 그 상호관계는 목극토(木剋土)·토극수(土剋水)·수극화(水剋火)·화극금(火剋金)·금극목(金剋木)으로 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 12) 이선화 (2004). 문화상품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전통색채 연구: 조각보의 배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 13) 우서혜 (2001). 한국적 색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 14) 김현희 (2000). 앞의 책, pp.6-7.
- 15) 이선화 (2004). 문화상품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전통색채 연구: 조각보의 배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16) 이연순, 이정은 (2009). 한국 전통 조각보 소재에 따른 배색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p.24.
- 17) 조성란, 박선경, 윤을요 (2011). 조선시대 전통보와 자수를 활용한 셔츠와 액세서리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61(4), pp.79-80.
- 18) 허동화 (2006). 앞의 책, pp.265-266.
- 19) 한은혜 (2011). 조선시대 조각보의 그리드체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 20) 김하나, 박연선 (2008).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배색에 관한 연구2: 19세기 비단조각보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22(2), p.27.
- 21) 김현희 (2009). 아름다운 우리 전통 보자기 만들기, 서울: 미진사, pp.22-27.
- 22) 허동화 (2006). 앞의 책, p.265.

A Study on the Design of Everyday Objects Applying Patchwork Wrapping Cloth(Jogakbo) of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Small Home Interior Pieces -

Cho, Sung Ran · Park, Sun Kyung⁺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ssibilities of the modernized design by analyzing certain geometrical compositions and forms that are shown in the patchwork Jogakboes, a genre of the boudoir artistic handicrafts in our cultural heritage, by modifying and developing the original formative beauties, and by re-interpreting the traditional beauties of Korea, and further to globalize Korean culture. This study, following the trend of the design of the times, which requires the continuous renovations, places the focus on the creations of the aesthetical values, where the Korean traditional images are applied. Also, by sewing by hand to express the variety of the beauties, the odd ends of yardage are sewed one by one to form certain facets that are connected simply and clearly by points, lines and faces so as to be materialized into another diversified facets. As a matter of fact, based on our rich cultural heritage, the free thought of the times and the designs of sensitivity are conjugated in this study.

Key words: Joseon Dynasty, jogakbo, everyday objects, small home interior pieces, design